

2019년 8월 14일 조간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구제역방역과 과 장 김대균(044-201-2531), 서기관 장순석(2537) / 제공일: 8월 13일(총 2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전국 모든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 정밀검사결과 '음성'

- 전국 모든 농장을 대상으로 위험 요인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검사 실시(5.31~8.10) -

《 주 요 내 용 》

◆ (추진배경)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해 전국 모든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단계별 정밀검사(혈액)* 실시

* 특별관리지역 돼지농장(624호, 5.31.~6.11.) → 전국 남은음식물 급여 농장(257호, 6.7.~14.) → 전국 방목형농장(35호, 6.17.~21.) → 밀집사육단지 농장(617호, 6.17~6.30) → 그 외 전국 모든 농장(4,896호, 7.1~8.10)

◆ (정밀검사결과) 전국 모든 돼지농장 ASF 정밀검사결과 모두 음성

□ 농림축산식품부(장관: 이개호, 이하 농식품부)는 아프리카돼지열병(이하, ASF) 예방을 위해 5.31일부터 8.10일까지 추진한 전국 모든 양돈농장에 대한 ASF 정밀검사(혈액 검사) 결과 모두 '음성'으로 판정되었다고 밝혔다.

○ 농식품부는 지난 5월30일 세계동물보건기구(OIE)로부터 북한 ASF 발생 사실을 확인한 이후, ASF 예방을 위한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를 추진하고 특별관리 지역(14개 시군)*부터 전국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단계별로 검사를 실시하였다.

* 강화, 옹진, 김포, 파주, 연천, 철원, 화천, 양구, 인제, 고성, 양주, 고양, 동두천, 포천

- 특별관리지역내 농장, 전국 남은음식물 급여농장 및 방목형농장, 전국 밀집단지내 농장, 그 외 전국 모든 농장 순으로 순차적으로 검사를* 실시하였다.

* 특별관리지역 돼지농장(624호, 5.31.~6.11.) → 전국 남은음식물 급여농장(257호, 6.7.~14.) → 전국 방목형농장(35호, 6.17.~21.) → 밀집사육단지 농장(617호, 6.17~6.30) → 그 외 전국 모든 농장(4,896호, 7.1~8.10)

□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ASF 국내 유입여부의 조기 확인을 위하여 공·항만에서 국내로 불법 반입된 휴대축산물과 야생멧돼지, 남은음식물 급여농가 등에 대한 검사를 지속 추진할 계획임*을 밝혔다.

* 야생멧돼지 28천건 검사추진중('19), 양돈농장 ASF 상시검사 예산 확보추진('20년 4억)

○ 아울러, 양돈농가에서는 사육돼지를 매일 임상 관찰하여 돼지가 발열이나 갑자기 폐사하는 등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방역기관(1588-9060/4060)에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.